

“전쟁터 나선 아빠와 우크라이나 평화 위해 노래합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 6개월...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연습 현장 가보니

난민 어린이 6명 등 25명 한국·러시아·영어 등 3개 국어로 합창 연습
2017년 창단 60회 공연·콩쿠르 수상에 입상...2일 공연 앞두고 구슬땀
성악가 김혜숙 단장 “아이들 표정 밝아져 뿌듯”...최근 후원회 신설도

“함께 광주 고려인마을로 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참전 중인 아빠를 위해 노래하고 싶어요. 아빠랑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마을 교회이자 진료소로 쓰이던 미디어센터가 이남은 합창 연습실로 변신해 앳된 목소리로 부르는 한국어 노랫소리가 가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나 광주에 정착한 난민 어린이들의 노래였다. 이들은 조상의 뿌리를 찾아 한국, 그 중에서도 고려인들을 반기는 광주로 왔다. 아직 한국어 발음이 다소 어색하지만 난민 어린이들은 서로 모르는 단어를 가르쳐 주고, 힘차게 울음을 하며 노래로 아픔을 씻어내고 있었다.

최근 고려인마을에서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부쩍 커졌다.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에 올레고(12), 나스짜(여·11), 이막심(10), 이안나(여·10), 비안나(여·8), 막심(7) 등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6명이 새로 참가해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

르기 시작하면서.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은 지난 2017년 성악가 김혜숙 단장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광주 시민들과 화합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창단한 단체다. 초등생부터 중학생까지 고려인 어린이 19명으로 구성됐다가 최근 난민 어린이들도 합류해 단원이 25명으로 늘었다.

김 단장은 “합창단에 들어오기 전 난민 어린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18~60세 남성을 출국 금지시키고 징병했다. 난민 어린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아버지를 남겨둔 채 어머니 손을 잡고 먼 타향으로 피란 온 상황이었다.

이들은 김 단장의 권유로 입단해 ‘평화’를 주제로 노래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미디어센터로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격도 밝아지고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나스짜 양은 “아직 아빠는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들고 싸우고 있다.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며 “평화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미디어센터에서 고려인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를 전하는 노래를 하고 싶다.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한국어·영어·러시아어 3개 국어로 한국 동요·민요, 러시아 민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습 중이다. 최근에는 부채춤, 소고춤 등 한국 전통춤 공연에 참석시키고 있다. 이날도 단원들은 ‘준가 찬가’, ‘홀로 아리랑’, ‘렛 잇 비’ 등 노래를

불렀다.

김 단장은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 우리 문화와 예절을 배우고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다”며 “전쟁의 아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합창단을 통해 평화를 전하는 전도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합창단은 지금까지 정기 연주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축하 합창 등 60여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호남신학대학 콩쿠르 등에서 수차례 입상했다. 지난 7월부터는 후원회도 신설돼 운영에 힘이 불었다.

합창단은 오는 9월 2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단계 심사위원 5명 중 4명, 합격자와 친분...모두 만점 줘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1~3단계 심사 점수표 보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원자의 당락을 갈랐던 ‘2단계 공개 강의 평가’ 심사 위원 5명 중 4명이 공모에 응했던 특정 지원자(최종 임용)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분 관계가 있던 4명의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은 심사를 불과 20분 남겨두고 평가 방법이 바뀐 ‘2단계 평가’에서 모두 해당 지원자에게 40점 만점(평균)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광주일보 취재 결과, 채용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조선대 무용과 2021년 강의전담교원 채용의 2단계 평가에는 모두 5명의 무용과 출신 교수들이 참여했다. 조선대 2명과 단국대, 고구려대, 계명대 교수 각 1명이다.

계명대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4명은 최종 합격한 응시자 A씨와 동기인 조선대 무용과 87학번 출신이거나 논문 공저자, 동일 무용단 활동 이력 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분이 확인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2단계 평가 당일 학과장 B씨로부터 “첫 번째(특정 응시자)야”라는 사전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 5명의 위원은 2단계 평가에서 A씨에게 평균 4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1명만

동기·논문공저·같은 무용단 활동 일부 이사 “공정성 시비, 임용 보류” 교무처장이 이사 설득 임용 마무리 학과장 “친분은 사실, 심사는 공정”

이 39점을 줬고 나머지 4명은 모두 40점을 줬다. 해당 교수 공모는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공개 강의, 3단계 대학본부 면접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 공모에 탈락한 응시자 C씨가 공모 절차 마감 직후 법원에 제기한 ‘임용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과정에서 단계별 점수표가 공개됐다.

점수표를 보면 1단계(30점 만점)에선 서류 전형 평가 대상자 3명 가운데 탈락 후보를 제외한 C씨가 25.55점(1순위), 최종 합격한 응시자 A씨가 21.95점(2순위)을 받았다. 3.6점 차이로 탈락자 C씨가 앞섰다. 그런데 2단계 평가에선 C씨가 응시자 3명 가운데 최저점인 28.67점(3순위), A씨는 40점 만점(1순위)을 얻었다. 격차는 11.33점이었다.

3단계(30점 만점) 대학본부 면접에선 응시자

A씨가 25점(2순위), 탈락자 C씨가 28점(1순위)을 얻었다. 1단계와 3단계 평가에서 각각 3.6점, 3점 차이로 탈락자 C씨가 응시자 A씨를 앞섰으나 2단계 평가에서 11.33점 차이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A씨가 올 1월 5일 임용 내정됐다.

2월 8일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에서는 교원 임용 의결에 앞서 일부 이사가 “채용 공정성 시비가 있고 있다”며 임용 의결을 보류하자는 주장을 폈으나, 교원채용전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자 예체능계열 교수인 교무처장이 “보류하면 더 큰 논란이 일 것”이라는 취지로 이사들을 설득하면서 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당시 학과장 B씨는 “최종 합격한 응시자 A씨와 다수 심사위원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말 연초에 심사가 진행돼 채용 심사 위원들을 다양하게 모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위원들의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믿고 있다. 향후 경찰 조사에 솔직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협보를 바탕으로 조선대 무용과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광주경찰청은 앞서 제기된 학과장 B씨의 2020년 교원 채용 관련 금품 요구 의혹, 최종 합격자(A씨)와 모 심사위원 간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시 비리 등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군수 선거 회계책임자 주거지 압수수색

뇌물로 받은 돈, 선거에 썼나 조사

무안군청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1지방선거 당시 김산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산 당시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등록인 A씨의 무안군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8억원대 수의계약 대상 뇌물 8000만원이 지난 4~5월 김군 캠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는지를 가리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일부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무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지난 6월 군청 기획실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토대로 수의 계약 비리 의혹 당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자체 구매 수의 계약 체결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하순 무안군 고위 간부 3명이 관공사 물품공급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날 현재까지 모두 5명의 관련자를 입건했다. 당시 군청 기획실장(4급), 상수도사업소장(5급), 상수도 자체 관련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알선자(브로커), 계약 담당자다.

무안군은 지난 3월 상수도 관련 자체 구매 계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 입건된 업체 대표 측과 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을 거쳐 업체 측이 마련한 8000만원에 이르는 뒷돈이 지방선거 과정에 김산 군수 캠프 캠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2명과 함께 김산 무안군수가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김 군수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송정 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 수사

업무상 배임 처벌 고소장 접수

경찰이 광주시 광산구 송정 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사업 전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은 당초 광주지검에 접수됐으나 이첩됐다. 고소장에는 전 조합장 A씨가 업무대행자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분양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 완료 때 당초 설계된 용역비 가운데

40%를 업무대행자가 집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뒤로는 조합원 모집 완료 때 용역비 80%를 집행했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50억원 안팎의 용역비를 절차를 위반하고서 빼돌렸다는 것이다.

조합 현 집행부는 고소장에서 “최근 3개월간 현 집행부가 외부에 맡겨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이면계약서를 통한 조합 자금 부정적 집행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초기여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1조원대 사기’ 유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유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유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

열린다.

유티머스 사태는 유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천억원에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 피해자는 법안·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협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1204	1	북구 문산로58, 101동 2층 208호 84.96㎡	아파트	214,000,000	
2022타경 61879	1	동구 학사로109, 109동 4층 401호 [소태동, 무등산골드클래스] 73.9080㎡	아파트	504,000,000	
2022타경 63127	1	서구 화운로99번길20, 105동 10층 1003호 [화정동, 화정동고교하이플러스아파트] 84.2401㎡	아파트	450,000,000	
2022타경 188	1	북구 금호로108번길23, 2층 205호	다세대	147,000,000	
2022타경 2269	1	서구 금호로108번길23, 2층 205호	다세대	147,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매수신청인이 매각물건기말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기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무지기 민사집행명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공무지기 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무지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9. 14. [수] 10: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4. 매각대상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은 최저매각가격의 1%[10만원]에 해당하는 공용기와 발행의 자기입찰표 또는 현금 등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판부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불합한 사항이 아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실금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매수신청인과 최고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물건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간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매를 실시합니다. 다만, 제매기간도 지정된 날의 2개월까지 총 2회 매수인이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1923	1	사용본거지: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123번길 28-3, 107호 [용운동] 등록번호:73부7464 차용:그랜드 카니발 연식:2010[사과이력 있음][42인]	자동차	3,000,000 3,000,000	본관:광주남구송정4동348-1, 송정주차장 [010-3822-7261]
2022타경 64700	1	사용본거지:나주시 남평읍 통림남석길 55-4 [통림리] 등록번호:95도6006 차량:뉴비트 연식:2005 [배출가스5등급에 해당하여 제한을 받는다 차량은 매매금지 차량이 무부속 상태인 것으로 조사, 보험사고이력 있음]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본관:나주시남평읍통림남석길55-7, 자동차등록원부상'불합격 차량' 구조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변을 납부한 대금반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제매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나 가압류의 앞소송기록을 작성하는 등 특약사항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발급 자제를 철회하고, 국민주택개발특별법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용역자가 매수인에게 부당권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의의 지등기, 등기 불합형 납부보다 먼저 주민등록등기인도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법 자문사등을 위한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유권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을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5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방문 인사 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에 나오는 때로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변보증금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매각대금에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⑥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⑦ 신변에 공고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변공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에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조건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의 실정이나 용,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을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실정이나 용, 대금지급신청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3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